

'불법 도박' 롯데 4인방, KBO 중징계...팬들 "실망 넘어서 분노"

등록 2026.02.24 22:04:00 | 수정 2026.02.25 07:31:45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현지 불법 도박장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KBO리그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Mr.Market' X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불법 사행성 업소를 출입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고승민, 김동혁, 나승엽, 김세민이 결국 리그 차원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선수 4명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2일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의 불법 게임장에서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구단은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4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자진 신고했다.

상벌위원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특히 방문 횟수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했다. 지난해부터 해당 장소를 총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투수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 차례 방문한 고승민, 나승엽, 김세민에게는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가 결정됐다.

KBO는 전지훈련 전부터 사행성 업장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KBO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리그 이미지 실추를 고려해 선제적 제재를 내렸다"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창에는 "팀의 주축 선수들이 시즌 준비는커녕 도박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롯데 팬으로서 배신감이 너무 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숨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사법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영구 제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